



女 장대높이뛰기 임은지 한달만에 또 한국신

전국실업육상대회 4m35 뛰어넘어 국내 첫 세계선수권 출전권 획득도

임은지(20·부산 연제구청)가 육상 여자 장대높이뛰기에서 또 한국기록을 세웠다. 임은지는 22일 안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여자부 장대높이뛰기에서 4m25에 걸린 바를 넘은 데 이어 4m35를 훌쩍 뛰어넘었다.

4m35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 기준 기록(B기록)으로 이로써 임은지는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국내 장대높이뛰기 여자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권을 획득한 것은 임은지가 처음이다.

이날 하루 한국기록 2개를 세운 임은지는 지난달 26일 대만국제대회에서 4m24를 넘은 데 이어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기록 행진을 재개했다.

1차 목표를 달성한 임은지는 5cm를 높은 4m40에 도전했으나 1차 시기 실패 후 계임을 마무리했다.

임은지 감독은 "강풍이 불고 날씨가 추워 근육 인대가 굳는 등 은지가 약조전에서 계임을 치렀고 불굴의 정신력을 발휘해 좋은 기록을 세웠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대만 대회 후 부산에서 훈련하면서 이번 대회에서 한국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했다는 임 감독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으니 이제는 중국의 가오슈잉이 작성한 아시아기록(4m64)을 깨는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임 감독은 이어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은지가 최대한 도전할 수 있을 만큼 기록을 높여갈 계획이다. 잠재력이 무한하므로 한국신기록 포상금(500만원)을 받고자 기록을 1cm씩 경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남자 100m 한국기록이 30년째 10초34에 머무는 등 20년 이상 정체된 한국 육상에서 임은지가 1년 사이 보여준 신기록 행진은 가히 독보적이다.

2007년 12월부터 장대를 잡은 임은지는 작년 4월 같은 대회에서 3m50를 넘는 이후 이날까지 1년 만에 기록을 무려 85cm나 끌어올리는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100m 허들, 7종 경기, 세단뛰기 등을 거쳐서 만능선수의 자질을 뽐낸 임은지는 실업팀 입단과 동시에 임 감독의 권유로 장대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폭발적인 신장세를 기록했다.

남자들이 하는 철봉 턱걸이도 30개쯤은 너끈하고 100m도 12초대 주파하는 등 다재다능한데 악바리 같은 투지와 집념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는 평가다. /연합뉴스



인간새 날다 22일 안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13회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여자부 장대높이뛰기에서 4m35를 뛰어넘어 또다시 한국신기록을 세운 임은지(20·부산 연제구청). /연합뉴스

김미정 전국 '최고 여검객'

〈광주 서구청〉
종별펜싱 女 일반부 에페 신아람 꺾고 금메달 영예



김미정은 지난해 11월 2012년 런던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위로 태극마크를 획득한 '주부 국가대표 1호'이다.

펜싱국가대표 김미정(31·광주 서구청)이 전국 '최고의 검객'이 됐다.

'2002년 부산아시아게임 금메달리스트' 김미정은 21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38회 회화배 전국남녀개인종별펜싱선수권대회 여자 일반부 에페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날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에페 준결승에서 국가대표 동료인 정효정(부산시청)을 15-13으로 꺾고 결승에 오른 김미정은 국가대표 신아람(충남 계룡시청)을 맞아 대결전을 펼친 끝에 15-14로 힘겨운 승리를 거두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22일 열린 여중부 사브르 결승에선 김지현(광주 풍암중)이 양희원(서울 가락중)에게 아쉽게 14-15로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남중부 경기에서는 이종현(광주 풍암중)이 동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광주체고 이정환은 21일 남고부 에페 은메달, 전남여고 박소형은 여고부 에페 동메달을 각각 차지했다.

광주대표는 이번 대회에서 총 금 1개, 은 2개, 동 2개를 획득하는 선전을 펼쳤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전남 태권도인 장성 총집결

내달 2일 종별태권도대회 개막



오는 5월 장성군에서 전남 태권도 선수들의 합찬 발차기 열전이 펼쳐진다. 장성군은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홍길동체육관에서 '전남 종별 태권도 대회 및 제 26회 초등부 태권왕 겨루기 대회'를 개최한다.

장성군 주최, 전남 태권도 연맹 협의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일반부·고등부·중등부·초등부 등 총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개막식에서는 장성군 생활체육 태권도연합회 선수단의 화려한 태권도 시범도 예정돼 있다.

한편 대회 기간동안 장성군에서는 '제 11회 장성 홍길동축제'가 열려 장성을

찾은 군민과 태권도 가족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류종선기자 vjs52@kwangju.co.kr

스폰서 부재에 방송 중계 외면 프로축구 K-리그 '이중고'

프로축구 K-리그가 정규리그 개막 한 달이 넘도록 타이틀 스폰서도 구하지 못한다 방송 중계를 통한 미디어 노출도 제대로 안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 3월8일 개막한 올해 K-리그 정규리그는 타이틀 스폰서 없이 경기를 치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경제난과 때문에 2002년부터 스폰서를 맡아왔던 삼성전자도 몸을 올린 가운데 당장 30억원에 가까운 거금을 투자할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프로연맹은 올해 컵 대회 스폰서를 기업에 아닌 오는 7월 열리는 '2009 피스컵 안탈투시아'를 준비하는 피스컵조직위원회에게 맡겼다.

컵 대회 스폰서를 또 다른 축구대회의

조직위가 맡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대회 명칭도 '피스컵 코리아 2009'가 됐다. 언뜻 보면 K-리그 대회인지 피스컵 대회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연맹은 현재 몇몇 기업체와 스폰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지만 전반기 동안은 결과물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스폰서 문제와 별개로 정규리그와 컵 대회의 중계방송도 팬들의 시청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다.

특히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스포츠진흥재단 4사와 중계권 협상이 틀어지면서 중계방송이 중단된 상황에서 '반사이익'이 예상됐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女 축구 박은선 또 무단이탈

서울시청 "더 이상 용납못한다"…선수생명 위태

한때 '여자 박주영'으로 불리며 한국 여자 축구 간판 스트라이커로 활약했던 박은선(23·서울시청)이 2009 WK리그 개막 경기에서 무단으로 무단으로 이탈해 선수 생명 위태롭게 됐다.

박은선은 지난 14일 코치진과 상의 없이 서울시청 선수단 숙소에서 나간 뒤 1주 넘게 연락을 끊고 있다.

서정호 서울시청 감독은 22일 "지난주 초에 허리가 아프다며 오전 훈련에 불참해 14일부터 훈련에 참가하라고 통보했지만 이후 특별한 설명 없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선의 선수단 이탈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시즌을 시작하거나 대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됐다는 것이 서정호 감독의 설명이다. 박은선은 2004년 아시아 여자청소년선수

권대회 우승과 함께 최우수선수(MVP), 득점왕(8골)까지 이뤄낸 여자축구의 '희망'으로 떠올랐던 선수. 180cm의 키에 남자 선수에게도 밀리지 않는 파워와 스피드를 갖춰 '괴물 공격수'로 불릴 정도다.

오랜 공백기를 가진 후 지난해 12월 동계 훈련에 참가한 박은선은 종종 팀을 이탈하며 소속팀과 소박곡질을 하면서도 몸을 만들어 정상 컨디션의 70~80%까지 올라와 올해 출범한 실업 연중리그인 WK리그에서 활약을 기대됐다.

박은선은 그러나 오는 27일 충남 일화와 WK리그 1라운드 경기를 불과 보름 가까이 앞두고 끝내 선수단을 이탈했다.

해당팀인 서울시청은 박은선의 출몰행동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퇴출'을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경매의 성공투자는 한국경매 한국법률경매(주) 062) 225-1688 H.010-3565-2888

잠깐!! 경매입찰 대리업무는 공인중개사로서 법원매수신청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법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순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가입업체) ※ 투자하실 분 및 재테크상담 대화형

아파트 (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아파트 (전세금액으로 내집마련)					토지 (주말농장/전원주택/묘지/리/부자)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서구	유촌동 바달로빌2차	34	17/15	1억4500만	1억	광산구	소촌동 라안2차	24	10/5	8000만	4200만	동구	동학동 일신리	는	749	6200만	4300만
	유촌동 대우파크2차	46	18/9	1억8000만	1억2600만		소촌동 주공아파트	24	5/2	5500만	3850만		삼계동 월연리	밭	1128	5000만	3500만
	화정동 삼익현대	42	12/8	1억2000만	8400만			도산동 우미아파트	24	13/10	5900만			4100만	삼계동 (수남마을)	밭	1128
	마곡동 화랑가	32	15/8	1억9000만	1억3300만		우신동 (홍신자룡마을)		40/41	8300만	4600만		2층주거	남동 동향리		밭	1112
	광영하이츠	32	25/4	8800만	6100만	우신동 (우봉포서관부)		38/46	8800만	4000만	2층주거		대림동 대림리		밭	2225	4430만
	화정동 삼익	42	12/8	1억4000만	7800만		우신동 (우봉포서관부)	155/101	3억4500만	1억9300만	2층주거			대림동 (범암마을)	는	1068	2830만
	광영동 삼익	42	12/8	1억4000만	7800만	우신동 (우봉포서관부)		39/37	8000만	4500만	2층주거		반성면 삼익리		는	1544	4600만
	광영동 삼익	34	15/12	1억7000만	1억1900만		우신동 (우봉포서관부)	48/42	1억3000만	4600만	2층주거			근남면 도당리	는	762	2300만
	차영동 중흥1단지	38	17/15	1억9000만	1억33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광산구 도산동 (송정초교부)		밭	4412	20억9000만
	차영동 중흥2단지	42	19/4	1억8000만	1억28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남구 백운동 (서산고전리)	대지	378	7억4100만
광영동 부건빌고을	32	19/17	1억3500만	94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남구 사자면 (용동마을)	는	454		1500만	670만	
금호동 리안아파트	37	17/9	1억2000만	8400만		우신동 (우봉포서관부)	48/42	1억3000만	4600만	2층주거		동학동 (21동마을)	농가시설	738/410	2억4500만	5800만	
금호동 금호파크빌	38	18/18	1억9000만	1억3300만	우신동 (우봉포서관부)		48/42	1억3000만	4600만	2층주거	동학동 용곡리		는	511	1500만	1000만	
광영동 금호타운	39	20/20	1억6000만	1억12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광영동 송곡리	괴수림	2913	1억9800만	7400만	
광영동 화랑리전시빌	33	20/7	1억4000만	98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동학동 와우리		는	2087	7800만	5400만	
금호동 도시세라미언지	24	15/13	8200만	656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화순구 남면 내리	는	820	3500만	2500만	
전원동 삼익세라미언지	32	20/6	1억2000만	84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이양면 갈성리		임야	25318	6700만	4700만	
주원동 신원2단지	32	15/8	8000만	56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남동 (용암마을)	밭	408	1750만	1200만	
주원동 영지	44	20/13	1억9000만	91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남동 (용암마을)		밭	555	5100만	3800만	
주원동 대화아파트	48	12/2	1억2500만	875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곡성구 곡곡면 (홍사마을)	는	691	2500만	1100만	
주원동 영지아파트	44	20/13	1억3000만	91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곡성구 곡곡면 봉정리		는	852	1800만	1280만	
주원동 금호타운	32	20/9	1억3000만	91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숙박시설 (운영수익최상)					
주원동 일무에다움1차	38	15/6	1억5000만	1억50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주원동 고운하이힐리스	32	12/1	1억4000만	98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서구	양동(월산리부)	174/424	5층	14억7000만	5억2500만	
간곡동 금호아파트	31	14/4	9000만	63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동성동 (사구정리)	140/538	5층	12억9000만	7억2000만		
관동동 현대1차	48	18/6	2억	1억40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회신동 (금호리)	1092/898	6층	17억4000만	3억2000만		
말곡동 현대2	24	19/15	7600만	53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북구	중흥동 (관남길로 빌)	120/403	6층	13억	5억8000만	
매곡동 서광인텔파크	37	22/1	1억2000만	84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북구	회동 (명주정부)	110/259	5층	8억2000만	2억3000만	
우신동 현대아파트	55	15/8	1억8000만	1억12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공공시설						
동원동 주공마을4단지	32	20/11	1억2000만	84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서구	광동(월산리부)	1500/1454	2층	31억	18억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광산구	광동(월산리부)	400/265	2층	9억7000만	5억40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남구시	남동(간곡리)	1250/704	단층	7억	3억10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공공시설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서구	광동(월산리부)	1500/1454	2층	31억	18억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광산구	광동(월산리부)	400/265	2층	9억7000만	5억40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남구시	남동(간곡리)	1250/704	단층	7억	3억10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공공시설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서구	광동(월산리부)	1500/1454	2층	31억	18억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광산구	광동(월산리부)	400/265	2층	9억7000만	5억40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남구시	남동(간곡리)	1250/704	단층	7억	3억1000만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공공시설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지역	소재지	면적	총/층수	감평가	최저가	
						우신동 (현대1차사부)	34/53	7800만	5400만	2층주거	서구						